THE LIGHT IN THE WINDOW



제2부

문턱 2

창가의 불빛

내 삶의 대부분 동안 나는 한 사람의 가치가 그가 이루어 내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믿었다.

합리적인 믿음이었다.

세상은 그것을 확인해 주려고 일부러 지어진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한다.

숫자.

목표.

실적.

이정표.

모든 시스템은 저마다의 지표를 갖고 있다.

모든 조직은 저마다의 순위표를 갖고 있다.

모든 시대는 성공을 측정하는 다른 방식을 발명한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그 측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한다.

남는 것에 집중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기묘한 현상 하나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가장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사람들과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억했다.

곁에 남아 있던 사람들.

들어 주었던 사람들.

시간을 내 주었던 사람들.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

인간의 기억은 보기보다 쉽게 감명받지 않는다.

수십 년이 지나면 기억은 네가 한 일만을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를 기억한다.

그리고 이 발견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

그것은 천천히 일어났다.

모든 진정한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듯이.

갑작스러운 계시는 없었다.

수백 개의 일화가 있었다.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친구.

힘든 순간에 네 곁에 앉아 있어 주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그 무게를 나누기를 택하는 가족 한 사람.

이 모든 경우에 숫자가 측정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일어난다.

존재는 힘을 낳는다.

고통을 없애 주기 때문이 아니다.

고독이 절대적인 것이 되는 일을 막아 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돕는다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

나를 정말로 도와준 사람들이 언제나 답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종종 남아 있겠다는 마음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젊을 때 우리는 가치가 행동에 있다고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아주 흔히 머무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기 있는 것.

도망치지 않는 것.

한눈팔지 않는 것.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곁에 있는 것.

별것 아닌 듯 보인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연결은 가득하지만 존재는 종종 빈곤한 사회에 산다.

우리는 몇 초 만에 누구에게든 닿을 수 있다.

지구 어디로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낀다.

어쩌면 존재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문제다.

존재는 주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희귀한 자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조언을 찾지 않았던 내 삶의 몇몇 시기를 기억한다.

전략을 찾지 않았다.

답을 찾지 않았다.

동행을 찾았다.

길의 한 구간을 함께 걸어 줄 누군가.

이렇게 말해 줄 누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너 혼자 건너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은 사건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를 바꾼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모든 것이 측정되는 환경에서 일했다.

실적.

시장 점유율.

성장.

생산성.

그런데도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몇몇은 어떤 보고서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신뢰.

충직함.

경청.

가까이 있어 줌.

이 가운데 어느 것도 표에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것들이 인간 삶의 대부분을 떠받친다.

존재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없을 때 뚜렷해진다.

공기처럼.

건강처럼.

어떤 애정들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그것들이 더 이상 곁에 없게 된 순간에 그 가치를 깨닫는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어떤 책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교훈 하나를 배웠다.

많은 문제는 즉시 해결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건너가 주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문제를 건너가야 할 때, 존재는 능력보다 더 가치 있다.

이상한 문장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시련을 겪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곧바로 이해한다.

어떤 설명도 상실을 없애지 못한다.

어떤 전략도 병을 없애지 못한다.

어떤 이론도 부재를 없애지 못한다.

인간이 교정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에게는 동행이 필요하다.

이 발견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방식도 바꾸었다.

모든 것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일을 그만두었다.

침묵을 실패로 여기는 일을 그만두었다.

내 가치가 세상을 고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일을 그만두었다.

대신 다른 자질을 기르기 시작했다.

기꺼이 함께해 주는 마음.

기꺼이 곁에 있어 주는 것.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어려움을 건너는 사람을 위해.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한 이를 위해.

덜 눈에 띄는 능력이다.

그러나 한없이 더 유용하다.

돌아보면, 내 생애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은 종종 한 가지 특징을 공유했음을 깨닫는다.

누군가 곁에 있었다.

때로는 나였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조용한 존재.

드러내지 않는.

밀고 들어오지 않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

인정을 바라지 않는.

박수를 찾지 않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밤사이 창가에 켜져 있는 불빛처럼.

어쩌면 성숙은 이런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매일 비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

세상을 구할 필요는 없다.

모두를 설득할 필요는 없다.

모든 전투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

진짜로.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

우리의 모든 인간다움을 담아.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안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잊기 때문이다.

말을 잊는다.

날짜를 잊는다.

심지어 중요한 사건도 잊는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남아 있어 준 사람은 좀처럼 잊지 않는다.

결국, 일과 여행과 성공과 상실과 변화와 흘러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랍도록 단순한 진실 하나가 남는다.

일어나는 일을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곁에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존재만으로 충분하다.